

불성실 신고 6,500명 중점관리

유흥주점·골프연습장·고소득 자영업자 등

광주국세청, 상반기 부가세 신고 27일 마감

호남지역의 올해 1기(상반기) 부가 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46만1천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6천500여명이 불성 실 신고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이에 따라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성실 납부를 유도한 후 행정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8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북 등 관내 사업자 가운데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46만1천명(개인 41만6천명, 법인 4만5천명)으로

지난해보다 1천700명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유흥주점, 골프연습장 등 호황업종과 고소득 자영업자 등 부가 가치세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대상자는 6천500여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인 3천800명이 늘었다.

중점관리 대상은 고소득 자영업자 1천700명, 하위 세금계산서 수령자 등 특정항목 불성실 신고 혐의자 4천명, 골프연습장·예식장·장의업 등 24개 호황 및 취약업종 사업자 800명이다.

중점관리 대상자에게 급증한 원인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구입·임차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와 항공권 구입액·접대비 지출액을 신용카드로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등이 올해 처음으로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중점관리 대상자들에게 구체적인 불성실 신고 혐의를 알려준 후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 등 세무간접을 최소화 예정이지만 불성실 신고자는 개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꾸준히 관찰하기로 했다.

특히 하위 세금계산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하고 하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형사고발하고 이를 사서 부정하게 환급이나 공제를 받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제 세무조

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홀택스 전자신고 상담인원을 확충하고 신고 마감일 전날인 휴일(25~26일)에도 신고를 받기로 했다. 또 지난날 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법정지급기한(8월 11일)에 앞서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광주지방국세청 조홍필 부가소비세과장은 “이번 신고분부터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이 면제대상에 포함되고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이자율도 5%에서 3.4% 인하되는 등 달라지는 제도도 많은 만큼 꼼꼼히 살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기자 bungy@kwanju.co.kr



한국바스프 스팀공장 준공

한국바스프 스팀공장 준공식이 9일 여수신단에서 열린 가운데 조진우 한국바스프 회장, 틸만 크리우흐(Dr. Tilmann Krauch)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사장, 박준영 도지사 등이 준공식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전남도청 제공>

금융업계 서민지원 나선다

신불자 신용카드 발급·저소득층 소액대출 확대

성실하게 빚을 갚는 금융채무 불이 행자(신용불량자)에게 일정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저신용자나 저소득층의 생계난을 덜어주기 위해 소액 신용대출 사업이 확대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9일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인 개인 워크아웃(채무 재조정)을 통해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는 사람이 주요 신용카드사에 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24개월 이상 연체 없이 빚을 갚는 사람에 한해 월 50만~70만 원 한도로 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는 것이다. 지금은 워크아웃이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카드를 이용할 수 없다.

신복위는 워크아웃 협약에 대부업체는 물론 외국계 은행 중 빠져 있는 HSBC도 가입하도록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하반기에 소액 신용대출

(마이크로 크레디트)을 취급하는 기관을 200~300곳으로 늘리면서 소액 서민금융재단을 통해 이 대출 재원으로 1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자산관리공사는 자체 소액 대출기금을 현재 150억 원에서 5천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협과 우리은행은 이달 말부터, 국민은행은 8월 중순부터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신용등급 7~9등급)에게 1인당 최대 500만 원을 연 8.4~8.9%의 금리로 빌려줄 계획이다. /연합뉴스

애플 '아이팟나노' 리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9일 애플 측이 국내에서 배터리 폭발 사고를 일으킨 MP3플레이어 ‘아이팟나노’ 1세대 일부 모델에 대해 리콜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표원은 애플 사내에서 7일 오후 아이팟나노 1세대의 리콜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다

고 말했다. 애플은 회신에서 “사용 중인 아이팟나노 배터리에서 실제로 과열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열현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고객도 배터리 교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리콜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기표원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종호 금호타이어 사장 취임 회견

“점유율 1위 … 중국시장 역량 집중

GM 몰락, 노조원 생각 달라져야”



김종호 금호타이어 사장은 9일 글로벌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든 역량을 중국 시장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의 광주 공장의 파업 사태와 관련해 그는 “GM의 몰락을 보고 노조원들도 생각이 달라졌다

을 것”이라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것에 가장 중요한 만큼 정도경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자간 담회에서 “중국 시장에서의 목표는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최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분 변화에 대해 “금호타이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1976년 입사해 30년 간 재직하면서 싱가포르와 중동, 뉴욕 등지에서 영업 및 무역 업무를 담당했고, 한국복합물류 사업과 아시아나 IDT 대표 등을 지낸 뒤 지난 4월 금호타이어로 복귀했다.

“인터넷결합상품

부분 해약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소비자 분쟁이 잦은 인터넷결합상품에 대한 분쟁 해결기준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

인터넷결합상품은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 등 2가지 이상의 상품을 하나의 계약으로 묶어 판매하는 상품으로 최근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늘고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규제사유로 인터넷결합상품 중 일부 상품에만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는 아무런 손해 없이 결합상품 전부 또는 일부 상품만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장애가 있는 일부 상품만 해제해도 남은 서비스에 대한 가격할인 혜택은 계속 유지된다.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한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이달 말까지 예고한 뒤 관련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 방침이다.

/연합뉴스

기준금리 연 2% 동결

금통위 5개월째

한국은행은 9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00%로 유지했다.

한은은 이날 오전 정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 3월부터 5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5.25%였던 기준금리를 지난 10월부터 매달 인하해 지난 2월에는 2.00%까지 낮췄다. 이번 금리동결은 경기가 아직 상승곡면에 진입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으나 약한 수준이어서 아직은 상승세를 자신할 수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경기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장마 영향 농산물값 들썩

양파 59%·감자 16% 올라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배추, 감자 등 일부 채소의 품질이 나빠져 농산물 가격이 둘씩이 되고 있다.

9일 각회농산물도매시장에 따르면 감자(20kg·1상자)는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1만2천832원으로 지난주 1만1천2원보다 1천832원(16.6%)이 올랐다.

양파(20kg·1상자)는 지난주 4천572원이던 것이 7천262원으로 58.8%나 올랐으며 무(20kg·1상자)도 995원(21.1%)이 올라 5천700원을 기록했다.

감자(20kg·1상자)도 출하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산지별 품위 차이가 커 시세는 지난주보다 1천830원(16.6%) 오른 1만2천832원에 거래됐다.

배추(8kg·1상자)는 국지성 호우의 영향으로 거래물량이 줄어들면서 품질이 나빠져 가격이 지난주보다 939원(19.5%)이 하락한 3천861원에 거래됐다.

수박 등 여름 과일은 거래물량이 줄면서 내립세를 보였다.

수박(6kg)은 잣은 비로 소비가 줄면서 지난주보다 985원(13.7%) 내린 6천161원이었다. 참외(15kg·1상자)는 지난주보다 568원(3.5%) 내린 1만5천642원이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마트, 시장 등에서 구입하고 있는 농산물 소매가격도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각회농산물도매시장 관계자는 “장마로 인한 피해가 아직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은데다 여름의 경우 비가 낳을 것으로 예상돼 오름세는 지속될 것이며 소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ju.co.kr

코스피지수
1430.89 (-0.13)
코스닥지수
502.80 (-2.89)
금리 (국고채 3년)
4.00% (-0.06)
원·달러 환율
1,279.00원 (+2.9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근린시설·쉼터 대표이사 010-7570-7525

숙박시설·상가 대표이사 010-7570-7525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품평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국민시설·쉼터 대표이사 010-7570-7525

숙박시설·상가 대표이사 010-7570-7525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품평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국민시설·쉼터 대표이사 010-7570-7525

숙박시설·상가 대표이사 010-7570-7525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품평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국민시설·쉼터 대표이사 010-7570-7525

숙박시설·상가 대표이사 010-7570-7525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